학교도서관의 협동교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 윤 옥*

目 次

1. 서 론
2.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2.1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개념과 목적
2.2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실시여건
3.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계획
4.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사례
5. 결 론

1. 서 론

최근 2-3년 사이에 나타난 교육계의 큰 변화로 학교도서관의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1993년 8월 20일에 처음 실시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이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암기력을 시험하는 것과도 같았던 과거의 수험제도와는 달리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의 도입과 독서지도의 강화, 실험실습, 연구테마 과제해결식의 수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토론식 수업을 주도했고 과목마다 연구테마를 숙제로 주어 학생들이 발표하고 교사는 발표내용을 검토 평가하는 교수방식을 채택하여 대학입학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신문기사[1]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 교육체제를 수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 95. 10. 31.

1) 중앙일보 1994년 1월 23일, 3면. 유소영. 1994. "정보교육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 학국문헌정보학회지 26:53p. 에서 재인용

립하기 위하여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에서 위원회는 여태까지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self-directed)학습능력 향상과 개별화 학습(individual-paced learning)의 강화,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토론학습, 탐구학습, 실험실습을 통한 학습,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정착시키겠다고 한다.[2] 결국 교육개혁위원회가 지향하는 토론학습, 탐구학습,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이나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자료가 바탕이 되는 학습, 연구테마 해결학습 등은 모두 학교도서관의 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교수 및 학습의 방식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교육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전략이 세워져야 할 때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된 1993년 8월 20일 이후에 한윤옥[3]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이 교육현장의 변화 또는 그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제도에 의한 시험 이후 종래의 획일적이고 주입식 위주였던 교수방법을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많은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사서교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별로 없다는 조사결과가 그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변화 또는 교육방법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각성과 요구는 아직까지 필요성의 제기에 그치고 있을 뿐 소수의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학교 교육현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의 변화 또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할 학교도서관의 변화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토론식의 수업이나 자료탐구학습, 연구테마 해결학습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뿐 자료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교수방법을 수업에 도입하는 교사가 별로 없고,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학교도서관 또는 사서교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 교육개혁위원회. 1995.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3) 한윤옥. 1993. "도서관의 공부방 현상탈피를 위한 도서관인의 자세 - 특히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도서관 48(5):37-57.

이런 현상의 원인은 교육현장의 환경적 여건이 미비하다든가 변화에 가담해야 할 교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업 담당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한편 교사들과 사서교사들의 협동과정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 주제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유소영[4]이 근본적인 교육방식의 변화라기 보다는 단순히 수학능력시험을 위하여 포장만 달리 하는 수업방식의 전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자료탐구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의 서지를 망라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학교교육에 정보교육을 도입시켜야 한다고 밝힌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탐구학습의 실시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서교사와 수업담당교사의 협동 과정을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한 고등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보므로써 협동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밝혀보려고 한다.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변화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

2.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2.1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개념과 목적

협동교수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은 자료탐구학습(resource based learning)을 학습수단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Ken Haycock이 수년간 연구와 사서교사로서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1978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은 도서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탐구학습활동의 개념에 사서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학습활동의 전략적 개념으로서 사서교사가 일반 교사들과 수업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맡게되는 핵심적인 역할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둔 용어[5]이다. 이것은 도서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탐구학습활

4) 유소영. 1994. "정보교육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6:53-74.

5) Haycock, Carol-Ann. 1988.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 Model That Works." Emergency Librarian 16(2):34.

동의 개념에 사서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학습활동의 전략적 개념[6]으로서 사서교사가 일반교사들과 수업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맡게되는 핵심적인 역활에 그이론적 근거를 둔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자료탐구학습을 교수활동에 포함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의 교과목에 대한 지식 못지않게 사서교사의 자료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정보기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에서 쓰여진 용어로서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료탐구학습은 다양한 형태의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교사 혼자서 모든 자료를 찾고 준비하여 수업에 임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충분한 수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자료전문가인 사서교사가 자료를 찾고 준비해 준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일반교사와 사서교사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교수과정을 계획한다면 교육목적을 훨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의 사서교사의 역할은 과거처럼 교과목 담당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단순히 제공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교사와 함께 교수과정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동반자적인 위치(teaching partner)가 된다는 것에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서교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협동교수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도서관에서의 경험과 교실에서의 학습경험을 효과적으로 통합시켜 그들의 학습경험이나 단원학습을 보다 심화시켜 주고 발전시켜 주는데 그 목적[7]이 있다. 또한 협동교수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과정에서는 교사가 학습과정의 통제자라기 보다는 조언자이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학생들은 학습과정의 융통성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보다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고 과제해결을 위한 정보탐색 및 이용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게 된다.[8] 이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만족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6) Mills, Mary Louis. 1991.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Flexible Scheduling Scheduling: What Do Principals Really Think?" Emergency Librarian 19(1):25.

7) Haycock, Carol-Ann 1988. op. cit.,:29.

8) DDubber, Geoffrey. 1989. "Teachers and Librarians-Working Together with Resource Based Learning-The Challenges and the Difficulties." Public Library Journal 4(5):111.

2.2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실시여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교수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전문적인 문헌이나 교과과정에 관련된 서적 혹은 사서교사들의 강습회 등을 통하여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개념이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서교사가 비교적 많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아직은 이것이 학교 교육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중의 하나로서 사서교사들은 비교적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이점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그것에 관하여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가 많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9] 그러므로 협동교수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도서관이나 이용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사서교사를 자료전문가로서 일반교사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일반 교사들과 사서교사들이 교수프로그램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일반교사들에게 알리고 교육시켜야 한다.

또 교장이 자료탐구학습과 그 학습과정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잘 이해한다면 학교교사들에게 그것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 할 수 있고 학교도서관의 프로그램을 교과과정에 통합시킨다든가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동교수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서는 학교경영자로서의 교장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10] 그러므로 사서교사는 학교교장에게 수시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 협동교수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성격과 이로운 점 등을 이야기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해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또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지원부서로 머물던 때와는 달리 일반교사들과 항상 접촉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사들이 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찾아가서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사서교사는 협동교수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반응이나 질문을 모두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제시책이나 답변 등을 준비하여

9) Hallein, Joe and Phillips, Judy. 1991. "Australian Primary Schools: Is CPPT Working?" Emergency Librarian19(1):29-30.

10) Mills, Mary Louise. op.cit.:25-26,.

일반교사들에게 사서교사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서교사의 준비나 자세, 답변 등은 일반교사들에게 사서교사를 교수 계획과정에 완전한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들과 협동하여 교수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서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서교사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전통적인 자료관리자나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 준다거나 문학을 좋아하게 격려해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한정시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실시에 앞서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11]

3.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계획

협동교수프로그램은 각종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탐색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서교사가 자신의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시키는 일반교사들과 협동하여 교수계획의 첫 단계에서부터 함께 수업전략을 세워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협동교수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집단, 즉 일차적인 관심이 수업기법에 있는 교사와 자료의 효과적인 이용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는 사서교사가 함께 계획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양자의 입장에 따른 교수계획이 필요하고 다시 그 계획들을 함께 검토하고 절충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양자의 입장에서의 교수계획에서 일반교사는 학습의 내용 혹은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사서교사는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정보이용기술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처럼 협동교수프로그램은 성격이 다른 집단이 모여 다단계의 과정을 밟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므로 치밀한 계획과정과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중 우선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교수계획과정을 보면 대략 다음[12]과 같다.

11) Hallein, Jeo and Phillips, Judy. op. cit.:25-26

12) Haycock, Carol-Ann. op. cit.:29-30.

1) 목표
교과목의 일반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학습단원별 목표의 설정

2) 내용
학생들이 학습할 교과목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

3) 조직
교과목 내용의 순서와 세부주제, 각 주제별 시간분량 등을 결정

4) 방법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 교수방법을 결정

5) 활동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위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결정

6) 평가
학생들이 지적으로 얼마나 성장하였으며 학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과정.

이상의 6단계는 일반적인 교수활동에서 볼 수 있는 계획과정이다.

1) 학습목표의 설정
사서교사는 이 교과과정에서 어떤 정보이용기술을 학생에게 습득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2) 내용의 결정 및 조직
교과성격에 맞는 미디어와 가용 정보자료 등을 선택하고 활용방법을 계획한다. 또한 일반교사에게 자료의 선택기준 등을 알려 준다.

3) 교수방법 및 전략의 설정
교사의 학습지도안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각종 자료를 선택하고 그것의 효용성 등을 검토하여 어떻게 그 자료들을 학습활동에서 이용하게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한다.

4) 학습활동의 결정
학생들의 특징이나 능력, 과제의 주제, 수업활동에 어울리는 자료의 형태 및 종류를 선택한다.

5) 학습결과의 평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보이용기술을 습득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각 매체와 정보자료들이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유용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다음번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의 단계들은 순서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두가지 혹은 세가지 이상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상 사서교사의 교수계획은 일반교사의 것과는 달리 독립적인 교과목이 아니므로 해당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교사의 교수계획과는 차이가 난다. 또 한편 교사의 교수계획 중에서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게 되고 사서교사가 일반교사의 교수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보통 다섯번째인 학생들의 학습활동 단계로 이것이 전통적인 학교도서관의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봉사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사서교사의 참여단계였다. 그러나 자료탐구학습을 학습수단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협동교수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목표설정의 단계부터 사서교사가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해당교과 혹은 단원에서 무엇을 배워 깨닫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목표설정의 단계에서 학습과정 혹은 지식측면에서의 목표를 정할 뿐 아니라 정보이용기술(information skill)측면에서의 목표도 함께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13] 요컨대 학생들은 해당 교과목 혹은 단원의 학습을 하면서 정보이용기술의 향상도 각 교과 혹은 단원 내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립의 초기과정에서부터 사서교사가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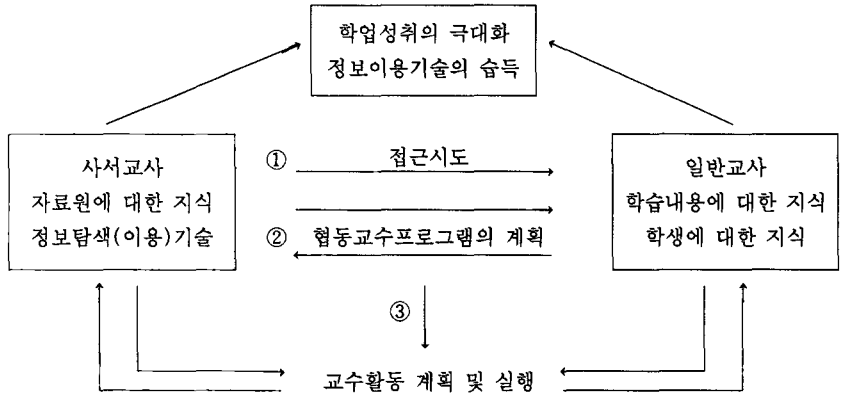
그림에서 ①부터 ③의 화살표가 뜻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살표 ①의 과정:

사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교수프로그램이 보편화되면 전 교과목의 전 교사가 대상이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서교사가 어느 교과목의 언 교사를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동반자로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

13) Ibid.

〈그림 1〉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계획과정 모형도



순서가 되고 그렇게 하기위한 잡근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서관에 찾아오는 교사와 이야기하며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서교사 자신이 공적인 회합에 참석할 뿐 아니라 사적인 접촉을 통하여 혹은 교사들의 소그룹 활동 등에 참석하면서 교사들의 특성, 흥미, 수업에 대한 관심도와 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열의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화살표 ②의 과정:

자료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서교사는 해당 교과목의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극대화와 정보이용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서교사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전략을 우선 세워야 한다. 교무회의 혹은 교과별 주임회의와 같은 공적인 회합을 이용해도 좋겠지만 오전중에 차를 마시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같은 사적인 시간이나 각 학기별 첫주와 같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 혹은 쉬는 시간과 같은 간간이 생기는 여유시간 등을 활용하여 만나는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사서교사는 사전에 그 교과목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하여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와 교과목의 수업에 관한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써 협동교수프로그램의 동반자로서의 신뢰를

상대편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서교사의 구상 및 준비과정은 다음[14]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해당 교과목 교사와의 의견교환
수시 접촉을 통하여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 일반 교사의 입장에서 기초작업은 학습목표,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전략, 단원별 시간 계획 등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고 사서교사는 제시된 수업주제에 필요한 자료의 입수가능성이나 유용성, 유용한 자료의 형태와 양, 자료의 적절성, 해당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이용기술과 학생들에게 이를 습득시키기 위한 기술적 요소 등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교과과정의 분석과 수업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해당 교과목의 내용과 범위, 단원별 주제 등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교과과정 편성지침을 검토하고 교과서를 검토한다. 또한 학업수준이나 교과목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기존지식을 조사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모의고사 출제의도, 교사들의 학습지도안과 수업보충자료,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 등을 검토한다.

3) 선행수업에서 사용된 정보이용기술의 검토와 새로운 정보이용기술의 교수전략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탐색기능과 학생들의 기존 정보 이용기술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기존지식과 기술에 따라 무엇을 새롭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4) 장서의 분석과 유용한 정보원의 선정
장서중 교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각 항목별 강점 및 약점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학습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보원을 선정한다. 이때 정보원은 자신의 도서관 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 베이스들을 비롯하여 선 후배, 동기생, 학부형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상의 활동을 통하여 사서교사는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끝

14) Haycock, Carol-Ann. op. cit.:31-32.
제인 벤디 스미스저, 이현영역. 1993. 열린 교육과 미디어 봉사, 서울: 구미구역. 84-112.

내고 일반교사와 함께 교수 계획을 세우는 〈그림 1〉에서의 3단계로 넘어가며 그 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교수 계획과정과 같은 흐름이다. 즉 학습목표의 설정, 학습할 내용의 결정 및 조직, 교수방법 및 전략의 결정, 학습활동의 결정, 학습결과의 평가 등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그림1에서의 2단계와 3단계 과정들은 각각 독립된 과정으로 때로는 중복되는 과정으로 처리될 수 있다.

4.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사례

협동교수프로그램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용어로서 그것의 개념조차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의 이론을 실행에 옮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알기 위하여 전국의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보다는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료탐구학습을 위하여 일반교사들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사서교사와 학교를 택하여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연구대상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소문하던 중 PC 통신 하이텔 내 도서관 동호회인 열린 도서관(go olib)에서 사서교사의 일기 1부터 5, 학교도서관 소개 등을 읽게 되었으며 그 일기의 주인공인 사서교사가 협동교수프로그램이라고 이름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개념에 가까운 봉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어 그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를 사례조사의 표본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선택된 학교도서관은 서울의 동북쪽 끝 경기도 구리시로 넘어가기 바로 전인 망우동에 위치한 송곡여자고등학교의 도서관이다. 이 학교도서관은 이덕주사서교사(29세, 이후 이교사로 통칭)가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교사는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이교사가 재학하던 당시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등학교때 도서반학생으로 봉사하면서 사서교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평생직장으로 택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이교사와 전화통화를 수차례하고 1995년 10월 25일에 이 학교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학교방문일을 10월 25일로 택한 이유는 그날 이 학교도서관 주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내독후감 발표대회가 있다고하여 행사에 참석하고 사서교사와 면담도 하기 위해서였다.

하루의 방문을 통한 면담과 고찰, 도서관주최의 행사를 통한 관찰, 전화통화, fax, 이 학교도서관에서 생산된 관련문서들, 이교사가 열린도서관에 올린 글, 국어교사 모임에서 발간한 책자에 실린 이 학교 도서관 운영기[15] 등을 바탕으로하여 도서관의 봉사활동을 조사하고, 협동교수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

송곡여자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고등학교 건물내 3층에 있다. 도서관의 봉사대상은 64학급의 3천명에 이르는 학생들과 교직원 150여명이고 도서관의 규모는 서고 겸 사서교사의 사무실이고 열람실이기도 한 교실 한칸 크기의 도서관과 부속시설로서의 제 1, 2, 3열람실로 이루어져 있다. 1, 2, 3열람실에는 약 720석의 좌석이 있고 냉온방 시설이 되어있으며 모든 책상에는 칸막이 시설이 되어있고 커튼가지 깔금하게 갖추어져 있다.[16] 그러나 이곳은 1, 2학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장소로 열람실들의 중앙출입문 근처에는 자율학습 담당교사의 책상이 있고 학생들의 출석부가 놓여있다. 그러므로 명실상부한 도서관으로서의 봉사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은 교실 한칸도 안되어 보이는 서고 겸용의 도서관이다. 이곳의 절반은 책이 빼곡하게 꽂혀있는 서가로 차있고 절반도 채 안되는 공간에 사서교사의 책상과 대출대, 잘 안보이는 서가 뒷면에 낡은 퍼스널 컴퓨터가 한대 있으며 서가들은 이용자들이 직접 책을 고를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또한 좁은 공간이기는 해도 교사들이 선택한 책을 읽을 수 있게 교사들의 열람테이블이 하나 사서교사의 책상 가까이 놓여있다. 교사들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띈다. 실제로 이교사는 1993년도 초에 부임하면서 우선 교사들을 도서실로 유인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고 한다. 그 말을 한번 들어보자.

> "흔히 학교도서관하면 바람직한 이상적 기능이 독서교육이라고 해서 이용대상을 학생들로 국한하거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강요하기가 십상인데 모든 교육이 교사나 부모의 모범에 근거해야 되듯이 교사들이 먼저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풍부한 독서지식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한 학생들에게 하는 독서권장은 선언과 당위에 머무르고 말 것이란건 상식이죠. 그리고 학교 도서관의 장서가 적고 봉사능력이 모자랄 수록 학생보다 교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 교직원 대 학생의 수가 150명 대 3,000명이라 하여

15) 편집부. 1995. "전담 사서교사의 도서관 운영사례 - 송곡여고 학교도서관. "함께 여는 국어교육24(여름):50-61.
16) 전게서. 51.

도 학교도서관 봉사의 비중은 50 대 50이어야 한다는 것이 학교도서관 (봉사)의 기본원리입니다. 혹 학교도서관을 준비하는 학교가 있다면 무리하게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나 봉사를 시작하는 것 보다 먼저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찾는 책이나 정보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찾아 답변하려고 애를 쓰지요. 대부분 학교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가 많아 그럴 때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DB 등을 검색하기도 하고 큰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드립니다. 각 교무실과 휴게실엔 교육정보, 정기간행물 목차 등을 비치하여 교사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습, 교양 서적이 아닌 교사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신간도서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이동문고로 2-3백권 정도씩 빌려와 선생님들의 발걸음이 도서실로 자주 향하도록 노력했지요.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한분 두분 늘어 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도서관 이용의 유용성, 문제해결 경험 등이 학생들에게도 전달되어 도서실이 붐비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17]

이상에서 우리는 이교사가 학교도서관의 우선 봉사대상을 교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교수프로그램은 교사들과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교사 우선의 봉사개념은 당 프로그램의 실행계단에서의 1단계에 해당되는 작업, 즉 〈그림 1〉에서의 화살표 1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사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DB 검색,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일하는 그의 선후배나 동기생 등과 같은 인적자원을 활요한 참고봉사, 공공도서관의 이동문고 대출을 이용한 부족한 학교도서관 장서의 보충 등이 눈에 띄는 봉사활동으로서 이것들을 교사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사서교사는 이때 교사들과 의견교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교사의 이와 같은 노력때문인지 이 학교에서 이교사는 일을 찾아하는 교사로 통하고 다른 사립고등학교의 사서교사들과는 달리 다른 교사들과 함께 정시에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를 처음에 사립고등학교인 이곳에서 전담 사서교사로 채용한 것은 야간 자율학습을 감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처음 한

17) 전게서. 53-54.

한 학기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하면서 자율학습을 감독하였지만 다음 학기에는 도서관의 역활과 사서교사의 할 일을 학교 당국에 수차례 건의하고 동시에 본인의 생각대로 말 그대로의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집에 가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결국 절반도 안되는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면서 웃는다. 그리고 자신은 1994학년도 초부터 자율학습 감독교사에서 풀려나고 다른 교사들과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아침에 나와 수업도 안하고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사서교사가 일찍 나와 있다고 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과후나 점심때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대출을 해 주고 참고질문도 받고 … 교사들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청해서 보강도 들어가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도 높아지고 사실 자기네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례히 사서교사가 일찍 나오는게 당연하다 여기는 것 같아요."

사서교사는 단순한 서고지기가 아니며 자율학습 감독을 하는 사람은 더구나 아니다. 사서교사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료전문가로서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실시나 그밖에 학교의 다른 행사, 학생들의 과외활동 등에 적절한 봉사를 계획하려면 다른 교사들과의 정보교환이 필요하고 학교의 여러가지 사정을 알기 위하여 각종 회합에 참석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시간 대에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교사는 자신의 실천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학교와 다른 교사들에게 인식시켰으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협동교수프로그램에서의 1단계(그림 1에서의 화살표 1에 해당)작업을 한 것이다.

협동프로그램에 대한 이교사의 의견과 그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방문 며칠전에 협동교수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을 Fax로 보냈고 면담할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은 그 대화 중의 일부이다.

한 — "협동교수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도움이 되겠든가요? 너무 유토피아적이라고 생각 안해요?"

이 —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아하 이렇구나 싶던데요. 저만 해도 사실 선생님들을

먼저 찾아간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선생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이야기하면 찾아드리는 것 위주로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과 관련된 테마를 저한테 귀띔해주고 그러면 제가 준비하고 … 하는 식이었는데"

한 — "주로 어떤 교과목 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나요? 대입수능시험 이후 수업방법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든가 가령 자료탐구학습 같은 것을 많이들 시도해요?"

이 — "대입수능 이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만 해도 그 핑계로 도서구입부터 예전보다 훨신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수업방법은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바구어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교련처럼 교과목운영이 자유롭다거나 가정이나 한문처럼 한 과목을 혼자서 한 학년을 다 맡아 하는 경우에도 쉽게 새로운 수업방법을 시도하세요. 독일어 같은 것은 제가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독일의 사회, 문화, 역사 등 방학과제 내주게 하고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게 했었지요."

한 — "주로 이선생님이 접근할 때 어떤 선생님들 한테 가나요?"

이 — "연령이 비슷하거나 한과목을 혼자 하거나 … 저번에 한문은 한 학년을 혼자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의 학교선배기도 해서 … 현장한문교사들의 모임인 한문교육지가 있는데 보니까 수업모델이 제시된게 있길래 PC 통신에서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한문선생님한테 주니까 서기서 힌트를 얻어서 수업방법을 개선하구 저한테 한시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을 구해달라고 해서 음악테이프에 담긴 것을 구해드렸었죠. 보통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주제도 묻고 그러는데 하루 평균 1-2건씩은 꼭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 이외에 나오는 그런 것도 많이들 찾으세요. 특히 교련교과같은 것은 교과목 운영이 자유로운 모양이에요. 조별 토론을 시키는데 주제가 다이어트 아마 여고생들이라 그런가보아요. 광주 5.18 불기소문제. 서태지음악이 끼치는 영향. 이런건 학교도서관에 자료가 없어서 PC 통신을 이용해서 자료를 구해주었습니다. 5.18 같은 것도 교수들의 성명서같은 것을 통신에서 다운받아 주었었죠. 신문스크랩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지난번 미군 폭행사건같은 것은 그냥 신문 모아두었다가 거기서 일부 찾아주기도 했지만 역시 통신에서 다운받아 알려주었지요." (10월 25일의 면담에서)

이상의 면담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일어 교과목의 경우로서 학생들의 방

학과제를 결정하는데 이교사가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으며 그 과제를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어 담당교사와 사서교사간에 교과목의 수업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서교사의 정보이용기술의 교수전략(10쪽 참고)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협동교수프로그램의 2, 3단계에 해당된다. 또 이 학교에서는 과제해결을 위해 도서실을 찾은 학생이 자료가 없어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보통은 교과목 담당교사가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미리 자료의 비치 유무, 권수 등을 사서교사에게 확인하고 사서교사는 과제의 시기와 해당학급 수를 교려하여 자료를 구입하거나 복사 등을 통해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 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및 과제도서 신청서를 문서화하였다고 한다.

다음이 1995학년도의 그것이다.

〈연구 및 과제도서 신청안내〉

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 논술 등으로 변화된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탐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교수수업도 학생들이 직접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과제조사에 의한 토론식 수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시간의 탐구과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교 도서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도서실에 미처 준비되어 있지않아 학생들을 실망시키는 사례 또한 많았습니다. 도서실에서는 각 교과 담당교사들과의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서 1995학년도에 필요한 연구과제 도서들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도서실에 구입 비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실의 자료를 활용하여 창의력있는 탐구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각 교과수업이 도서실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을 받도록 선생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연구 및 과제의 주제

①

②

③

④

2. 구입희망도서 (추천참고자료 등)

	책이름	지은이	출판사	비고
①				
②				
③				
④				

3. 단원명 (도서구입이 필요한 교과단원명)

#. 기재요령 : 선생님들이 교과연구를 하실 주제나 학생들에게 부여할 과제명들을 적어주시거나 그에 적합한 책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책이름, 출판사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할만한 책이 있었으면 하는 단원의 이름만 적어주셔도 그에 해당되는 도서들을 조사하여 구비하겠습니다.

#. 제출기한 : 1차 - 2월 18일, 2차 - 3월 4일. 이후에도 신청해 주시면 도서구입 신청시 우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과목 : 교사 : 인

위의 무서를 살펴보면 이것만으로는 언제 몇학년의 어/던 교과목에서 어떤 과제가 나갈 것인지를 사서교사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교사가 작성한 1994학년도의 문서에서는 위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항목, 즉 사서교사가 먼저 수업에 관련된 혹은 학생들의 과제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문서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면 1994년도에는 위의 〈연구 및 과제도서 신청안내〉에서의 1과 2항목에 각 항목별 예를 들어 주었으면 3항목의 단원명을 기재하는 곳에 단원명 대신에 기타항목을 두어 과제가 언제(과제시기 : 월경), 몇학년을 대상으로(대상학년 : 학년), 몇학급이 그와 같은 과제를 받을지(학급수 : 학급),

또 교과목은 무엇인지(과목 :)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18]

이것을 통하여 사서교사는 각 학년별로 언제 어떤 교과목에서 어떤 과제가 나갈 것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은 곧 수업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다름이 없다. 또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과정에서 이것은 사서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 항목은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신청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는다면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원하는 상대편 교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점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은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계획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오"

이교사의 말에 따르면 본래 이 문서는 도서구입신청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는데 결국 과제탐구학습에 도움이 되는 문서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 문서의 배포시기로 학년 초나 학기 초(3월과 9월)를 권한다. 왜냐하면 2월에는 같은 재단내의 타학교의 교사들의 이동이나 담당학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문서를 주어도 교사들이 과제를 정하지 못해서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교사는 의도적으로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이 학생들의 탐구과제를 해결하도록 참고봉사를 실시하면서 협동교수프로그램의 1단계와 경우에 따라서는 2단계까지 해당되는 봉사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봉사형태에 체계적인 계획과정을 적용시킨다면 훌륭한 협동 봉사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우리나라는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세계화를 국가적인 지향목표로 세우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중고등학교의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파행적인 교육은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오래동안 방치되어 왔던 사회적인 문제인데 1993년부터 실시된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과 본고사의 부활, 논술고사 등의 영향으로 종래의 암기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 개

18) 전게서. 55.

개인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자료탐구중심의 교수학습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방향도 역시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개별화 학습의 강화,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토론학습, 자료탐구학습, 과제해결식의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많은 자료가 바탕이 되는 수업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인 학교의 시설과 인적 요소는 바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이며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탐구학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협동교수프로그램이다.

본 논문에서는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계획과정을 이론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사서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한 학교와 사서교사를 선정하여 실제로 협동교수프로그램이 그곳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과정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관찰과 사서교사와의 면담, 도서관에서 생산된 문서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문제들은 앞서의 이론들과 함께 현장의 사서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관점들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이 조사과정을 거쳐 발견된 것들이다.

1. 협동교수프로그램은 사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먼저 접근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수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이므로 누구에게 접근하는가가 중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한 교과목을 한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는 동반자로 적합하다. 또한 젊은 연령층의 교사들이 교수방법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므로 그들을 접근 대상자로 선정해도 좋을 것이다.
2. 협동교수프로그램은 많은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도서관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에 접촉하여 구하거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공도서관의 이동문고 대출을 이용하여 부족한 학교도서관의 장서를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협동교수프로그램은 사서교사와 일반교사가 교수과정의 완전한 동반자로서 계획과정부터 평가에 이르기 까지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서교사의 정상적인 출퇴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서교사는 교사들과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에 관련된 참고봉사도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일부 학교의 관행을 깨고 오전에 사서교사가 있어야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교장이나 동료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서교사 자신의 능력과 자세 및 열의에 달려있다.

4.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방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 일반교사들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안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동교수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인가를 사서교사나 일반교사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도서관협회나 사서교사 모임, 또는 학회 등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과제를 매 학기 초에 교사들로부터 미리 받아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서교사 자신이 일반교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상교사를 선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6. 도서관이 도서관다울 수 있기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사서교사 자신의 열의와 능력, 자세라고 본다. 비록 열악한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라도 사서교사의 열의와 실천적인 행동에 따라 도서관이 도서관다울 수 있는 협동교수프로그램과 같은 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위원회. 1995.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유소영. 1994. "정보교육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6:53-74.

제인 밴드 스미저, 이현영역. 1993. 열린 교육과 미디어봉사. 서울: 구미무역.

함께 여는 국어교육 편집부. 1995. "전담 사서교사의 도서관 운영사례 - 송곡여고 학교 도서관." 함께 여는 국어교육 24(여름): 50-61.

한윤옥. 1993. "도서관의 공부방 현상탈피를 위한 도서관의 자세 - 특히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도서관 48(5): 37-57.

Dubber, Geoffrey. 1989. "Teachers and Librarians - Working Together with Resource Based Learning - The Challenges and the Difficulties." Public Library Journal 4(5): 111-116.

Hallein, Joe and Phillips, Judy. 1991. "Australian Primary Schools: Is CPPT Working?" Emergency Librarian 19(1): 29-31.

Haycock, Carol - Ann. 1988.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 Model That Works." Emergency Librarian 16(2):29-38.

Mills, Mary Louis. 1991.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Flexible Scheduling: What Do Principals Really Think?" Emergency Librarian 19(1): 25-28.

ABSTRACT

A Study on the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Yoon-ok Han*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is a strategy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esource based learning. This approach combines the classroom teacher's subject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students with the teacher-librarian's specialized knowledge of the availability and use of learning materials. And the purpose of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is to develop learning experiences or units of study that effectively integrate the student's resource center activities with other learning experiences. There are also some conditions that are conducive to effective planning sessions. First, the teacher-librarian must be prepared to initiate planning with teachers, rather than waiting for teachers to come to them. Second, the teacher-librarian must be prepared to present suggestions in such a way that the teacher can resp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planning process of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in the previous studies and (2) to find general problems when the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apply in actual situation. For these purposes, I chose a school library and a teacher-librarian in Seoul to observe how this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carry out in the school library.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 teacher who teaches alone for one grade is more proper to carry out the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Young teachers are usually more active to change their teaching methods.

*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onggi University.

(2) The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is a program what needs a lot of materials. When there is no right reference book in a school library, it would be good to access DB through PC telecommunication. It is also possile to contact lirarians who work in large public libraries or university libraries.

(3) The coo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needs cooperative working between a teacher-librarian and a teacher. Thus a teacher-librarian should be in his school in the day time like the other teachers for the program's planning process.

(4) There has to be a guide to change into resource based learning in teaching method. Thus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or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should offer a seminar or a workshop about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for the teacher-librarians.

(5) It needs a system that a teacher-librarian can know about student's assignments so that he can prepare reference books for them.

(6) The school library can be able to offer excellent service like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 to the teachers and students according to a teacher-librarian's enthusiasm.